

제46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승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46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이 27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수상자 5명,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승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 올해로 46회째를 맞고 있다.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상이군경 장정식씨 수색 중 무릎 부상...중상이자 자활 기반 기여

장정식(71)씨는 1967년 1월 10일 육군에 입대해 6사단 2연대 수색중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다 수색재찰 임무 중 왼쪽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고 1969년 11월 상이 1급 판정을 받아 명예전역했다. 장씨는 동료 30명과 함께 서구 마북동 탄약고 인근에 부지를 확보, 전남 중상이자 자활집단촌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 군부대에서 무상지원 받은 전반으로 공동

양돈사업을 추진해 자활기반을 마련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은 장씨의 사연을 연중시리즈로 게재했고, 장씨는 1972년 전남도지사 표창과 옛 전남일보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7년부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상 무특별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상이자 부인 박정애씨 부상 남편 내조하며 아파트 부녀회 활동

박정애(여·71)씨는 1967년 주일 한국 군사령 헌병(CRD범죄수사대)으로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 당해 전상군경 3급(현 2급)으로 명예전역한 김동채씨의 아내다. 박씨는 부상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는 남편을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다. 또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며 주변으로부터 효부라는 칭찬을 받았다. 가정생

활이 안정되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하며 묵묵히 내조하고 있다.

현재에는 아파트 부녀회 일원으로 활동하며 주민들의 협동심과 단합을 위해 매일 한차례 아파트 단지내 대청소를 하고 있으며, 이웃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시간나는 대로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미망인 홍옥례씨 남편 7개월만에 전사...집안 생계 책임져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홍옥례(여·89)씨는 20살이 되던 해에 고 정유석(당시 23세)씨를 만나 결혼해 외아들을 얻는 등 다복한 가정생활을 꾸렸다. 하지만 남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입대해 같은 해 9월 강원도에서 전사했고, 시아버지마저 빨치산의 총격에 세상을 떠났다. 홍씨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농사일, 품팔이 등으로 집안 생계와 아들 교육을 책임졌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아래 교육행정 공무원이 됐고, 현재 홍씨는 광주시 동구에서 아들 내외, 손자 내외 3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홍씨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을 실천해 지난 2003년부터 동구 장동 노인당 식사준비를 돕는 등 노인 봉사와 함께 무등산 정화활동에도 참여했다. 아들 내외 또한 홍씨를 본받아 노인무료 급식소 봉사, 복지기관 후원 등에 힘쓰고 있다.



전문군경 유족 김철규씨 가족 잃고 월남전 참전 지역 고아원 후원

4형제 중 장남인 김철규(79)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 김형주씨가 전투 중 숨지고, 무장공비에 의해 조부모·모친·남동생 2명마저 잃었다. 겨우 살아남은 동생 한 명은 피난 중 잃어 소식이 끊겼다.

두남이와 신문팔이로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1965년 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11년간의 군 생활 후 중사로 전역했다.

김씨는 6·25전쟁 중 화랑 20연대를 따라 강원도로 가던 중에 우측 다리에 총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서울 삼에 보육원으로 가게 된다. 구

이후 1976년 (주)삼우교통 택시회사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고아원을 후원했고 고엽제전우회 사무국장, 전문군경유족회 남구지회장을 역임하며 회원들의 복진 증진에 힘썼다.



특별부문 장영근씨 학도병 자원 입대...화랑무공훈장 받아

장영근(84)씨는 6·25전쟁 때 학도병으로 입대한 참전용사다. 장씨는 16살이 되던 해 6·25가 발발하자 당시 다니던 호남중학교를 중퇴 후, 학도병(소년병)으로 자원입대에 설악산 공략전 전투·중공군 방어 작전·월미산 방어 작전·접근산 전투 등에 참전해 공을 세우고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전역 후인 1955년 4월부터 이듬해 7월 까지 보병 제31사단 예비군장설 업무 활동을 맡

았으며, 1969년에는 유덕동 예비군중대장으로 1년간 활동했다. 2011년부터는 북구지역 경로당 후원, 2017년부터는 무등산 가꾸기 자연정화 활동에 동참했다.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 까지 무공수훈자회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으로서 무공수훈자 '전적지 순례', '안보결의대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모행사' 등을 주도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전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전남 차량 10대 중 1대 대기환경오염 유발

저공해 조치도 안해

광주·전남에 있는 차량 10대 중 1대는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5등급 차량의 96%가 저공해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연식, 유형,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이 제

한된다.

광주지역에 등록된 총 66만 5668대의 자동차 중 1등급은 4만 757대, 2등급 27만 390대, 3등급 23만 7179대, 4등급 5만 240대, 5등급은 6만 7102대이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총 103만 7487대의 자동차 중 1등급은 4만 9709대, 2등급 34만 8372대, 3등급 38만 658대, 4등급 9만 3972대, 5등급은 15만 6553대이다.

5등급 차량 중 광주지역의 2854대(5%)·전남지역 5931대(3%)만이 저감장치 부착·LPG 전환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월 한 달간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emiiongrade.mecar.or.kr)를 운영해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차량 보급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 콘텐츠원캠퍼스 사업 선정...광주·전남 유일

광주보건대·전남도립대

지역 직업교육 거점 대학 선정

광주대학교가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에 선정됐다.

26일 광주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 추가공모' 최종 선정결과, 광주·

전남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VR 실감 미디어 기반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 운영사업'은 산학연관 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통해, 미래 콘텐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광주보건대와 전남도립대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 '후진학 선도형'(III유형)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두 대학은 10억 원씩 3년 동안 균등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전남도립대는 전남과대학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中 심천 '대공방' 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 동구는 "동구창업지원센터 협력과 확장을 위해 중국 심천 '대공방'(大公坊)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동구는 우수창업 아이템 시제품 제작 및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중국 국가인중창업지원기관인 '대공방'과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대공방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인프라 공유, 지역사회와 글로벌네트워크 형성, 투자 유치,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이 기대되고 있다.

딩춘파 '대공방'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동구창업지원센터 4층에서 대학생,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투자유치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주제로 창업포럼 로드쇼 특강도 진행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중국 대공방의 시제품 제작능력,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국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청년·예비창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다음달 1일 정식개소하고, 창업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창업생태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for sea weather (바다 날씨).

Table for life index (생활지수) with categories like weather (날씨), air quality (대기), and UV index (자외선).

Table for weekly weather (주간 날씨) showing forecasts for the next 7 days.

Large advertisement fo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Dae San Primo Hair Extensions) featuring four men's portraits, product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Oticon hearing aids, celebrating 115 years of Denmark's Oticon brand, with promotional offers and contact details for Kwangju branch.